## ■ 카메오 전성시대

바야흐로 '카메오 전성 시대'다.

저명한 인사나 배우가 극중 예기치 않은 순간에 짧게 등장하는 카메오(Cameo) 출연이 영화 보는 재미를 더해 주고 있다. 특히 요즘에는 탤런트, 가수 등 유명 연예인 뿐 아니라 감독 등 '아는 사람만 아는' 의외의 인물들도 많이 등장하는 추세다.

# 나 찾아 봐라!

## '라디오 스타' 이준익 감독 주방장으로…가수 김장훈·임백천 실명 카메오

올 가을 사람들 마음을 훈훈하게 해주었던 영화 '라디오 스타'(감독 이준익)는 콧끝 찡한 눈물과 유쾌한 웃음을 함께 전해주는 작품이었다. 1980년대 가수왕을 차지했던 최곤(박중훈)과 그의 매니저 박민수(안성기)가 주인공인 이 영화에서는 특히 예기치 인물들이 등장, 웃음 폭탄을 날린다.

압권은 중국집 주방장으로 출연한 이준익 감독의 등장. 당초 영화를 찍기로 했던 했던 영월의 실제 주방장이 펑크를 내면서 갑작스레 출연한 이 감독은 동료 직원을 손으로 때리는 액션(?) 연기를 펼쳤다.

또 가요계와 방송국이 주무대인 영화답게 가수 김장훈은 주인공 박중훈을 무시하는 '가수 김장훈'으로, MC 임백천 역시 '임백천' 역으로 실명 출연해 사실적인 연기를 선보였다. 이들이 등장할 때 객석에서 웃음이 터져 나오는 건 당연지사.

아 자신의 또 다른 만화인 '식객' 촬영을 마쳤다.

'식객'에서 주인공 성찬의 이름을 빗대 "성찬? 진수성찬이네"라고 말하는 대사 연기를 한 허영만은 4번만에 OK 사인을 받았다는 후문.

임상수 감독의 '그 때 그사람들'에도 출연했던 '타짜'의 최동훈 감독 역시 여주인공 김혜수가 잡혀간 유치장 신에서 경찰로 출연하기도 했다.

배우들의 카메오 출연도 관객들에게 즐거움을 준다.

뮤지컬 스타에서 드라마 '포도밭 그 사나이'로 팬층을 넓힌 오만석은 김수로 주연의 코미디물 '잔혹한 출근'에서 파파라치를 양성하는 흥신소 사장으로 출연해 웃음을 준다.

또 '제 2의 전지현'으로 불리는 배우 장희진 역시 기존의 청순형 이미지 대신 '가문의 부활'에서는 내숭녀로 깜짝 출연, 화제가 됐었다.

찰떡콤비 신현준과 김원희는 '누가 그녀와 잤을까?'에 카메오 출연했다. 두사람은 개소주 과다복용으로 40대 얼굴이 된 고교생 박준규의 부모 역을 맡았으며 특히 신현준은 김원희, 정준호 주연의 '사랑방 선수와 어머니'에도 김원희의 남편으로 깜짝 출연한다.

외화로는 오랜만에 관객몰이를 하고 있는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에는 패션계를 배경으로 하는 작품답게 톱 모델 지젤 번천, 패션 디자이너 발렌티노 가라바니 등 유명 인사들이 줄줄이 카메오로 출연, 재미를 선사한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만화가 허영만(가운데)은 '타짜'의 여세를 몰아 자신의 또 다른 만화로 만들어지는 '식객'에 출연 촬영을 마쳤다.

주방장으로 출연한 이준익 감독(왼쪽)은 액션(?)연기를 펼친다.

'누가 그녀와 잤을까?'에 카메오 출연한 신현준과 김원희.

## 주말 극장가

| 영 화 | 상영극장 |
|---|---|
| **애정결핍이 두남자에게 미치는 영향**<br>외로움에 몸서리 치는 못말리는 부자의 애정 결핍 탈출기가 그려진다. 15세 관람가. | 롯데(광주), 메가박스, 무등, 밀리오레, 엔터, 콜롬버스(상무·하남), 프리머스 제일, CGV(상무·첨단), 하미, 목포 롯데, 목포 메가라인, 목포 CGV, 순천 롯데, 순천 씨너스, 여수 씨너스 |
| **누가 그녀와 잤을까**<br>고등학교 안에서 벌어지는 요절복통 섹시 코미디로 학교에 떠도는 은밀한 소문의 주인공을 추적한다. 15세 관람가. | 롯데(광주), 메가박스, 무등, 밀리오레, 콜롬버스(상무·하남), 프리머스 제일, CGV(상무·첨단), 하미, 목포 롯데, 목포 메가라인, 목포 CGV, 순천 롯데, 순천 씨너스, 여수 씨너스 |
| **그루지2**<br>전 세계를 공포로 떨게 했던 영화 '그루지'의 속편이다. 저주받은 집에서 나타나는 오싹한 귀신의 모습이 2편에서도 그대로 재연된다. 15세 관람가. | 롯데(광주), 메가박스, 콜롬버스(상무·하남), CGV(광주·첨단), 하미, 목포 롯데, 순천 롯데, 순천 씨너스, 여수 씨너스 |
| **어느 멋진 순간**<br>리들리 스콧 감독이 아름다운 포도원을 배경으로 냉정한 영국 남자와 순수한 프랑스 여성이 밀고 당기는 사랑 게임을 이야기한다. 15세 관람가. | 메가박스, 무등, 콜롬버스(상무·하남), CGV(상무·첨단), 하미, 목포 롯데, 순천 롯데, 순천 씨너스 |
| **사랑따윈 필요없어**<br>소녀에서 여인으로 변신한 배우 문근영의 성숙한 연기를 만날 수 있다. 전혀 다른 삶을 사는 두 사람의 거짓과 진실을 오가는 사랑이 펼쳐진다. 15세 관람가. | 롯데(광주), 메가박스, 무등, 밀리오레, 엔터, 콜롬버스(상무·하남), 프리머스 제일, CGV(상무·첨단), 하미, 목포 롯데, 목포 메가라인, 순천 롯데, 순천 씨너스, 여수 씨너스 |
| **열혈남아**<br>주먹만이 난무하는 조폭 영화가 아닌 '모성애'를 중심으로 등장 인물들의 갈등 관계를 그려낸다. 15세 관람가. | 롯데(광주), 메가박스, 무등, 밀리오레, 엔터, 콜롬버스(상무·하남), 프리머스 제일, CGV(상무·첨단), 하미, 목포 롯데, 목포 메가라인, 목포 CGV, 순천 롯데, 순천 씨너스, 여수 씨너스 |
| **사일런트 힐**<br>게임을 원작으로 한 호러 스릴러물로 30년 전, 화재로 모든 것이 사라진 전설의 마을에서 펼쳐지는 끔찍한 일들을 다룬다. 18세 관람가. | 메가박스, 무등, 하미, 목포 롯데 |
| **데스노트**<br>일본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모았던 만화를 영화로 옮겼다. 우연히 사신의 노트를 주운 주인공과 사설 탐정의 숨막히는 두뇌게임이 시작된다. 12세 관람가. | 롯데(광주), 메가박스, 무등, 엔터, 콜롬버스(상무·하남), CGV(상무·첨단), 하미, 목포 롯데, 목포 메가라인, 순천 롯데, 순천 씨너스, 여수 씨너스 |
| **잔혹한 출근**<br>돈을 위해 아이를 유괴하지만, 도리어 자신의 아이를 유괴당하는 어설픈 유괴범의 고군분투기를 그렸다. 15세 관람가. | 무등, 밀리오레, 엔터, 콜롬버스(상무·하남), CGV(상무·첨단), 순천 씨너스 |
|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br>대학을 갓 졸업하고 패션 잡지사에 취업한 사회 초년생의 고군분투기를 중심으로 패션세계를 유쾌하게 풍자한다. 12세 관람가. | 롯데(광주·첨단), 메가박스, 무등, 밀리오레, 엔터, 콜롬버스(상무·하남), 프리머스 제일, CGV(상무·첨단), 하미, 순천 롯데, 여수 씨너스 |

## "그냥 웃어…교훈 따윈 필요없어"

주목! 이 영화

### '애정결핍이 두남자에게…'

이 영화 제목부터 심상치 않다. 영화 '애정결핍이 두남자에게 미치는 영향'(감독 김성훈)은 말 그대로 17년 동안 애정 결핍에 시달려온 두 남자의 눈물나는 이야기이다.

동철동(백윤식)과 동현(봉태규)은 못말리는 엽기적인 부자. '정의의 파수꾼'을 사칭하는 철동은 두루마리 화장지를 풀어 길이를 재본 뒤 규격과 맞지 않다며 화장지회사에서 돈을 뜯어낸다. 동현도 만만치 않다. 친구들을 물구나무 세워 삥 뜯기를 일상으로 하고, 망치 등 연장을 가지고 다니며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위협한다. 이렇게 꼭 닮은 부자가 가장 싫어하는 말이 아이러니하게도 '부전자전'이다.

더군다나 이혼녀 미미(이혜영)의 등장으로 부자관계는 극단으로 치닫는다. 미미를 차지하기 위해 벌어지는 부자간의 혈투에서 마늘, 양파, 생강, 수면제 등이 동원되고 아버지는 아들을 존속 살해 미수 혐의로 고소하기까지 한다.

상식에 어긋난 두 부자의 이야기가 그 자체로 웃음의 소재다. 영화는 "교훈 따윈 필요없어"라고 외친다. 복잡한 생각없이 그저 보고 웃고, 즐기면 된다. '올드보이' '너는 내 운명' '살인의 추억' 등을 적절하게 패러디한 점도 눈길을 끈다. 15세 이상 관람가.

/곽선정기자 ksj@kwangju.co.kr

## SES 유진 '못말리는 결혼' 캐스팅 영화 데뷔

영화계는 지금

그룹 SES 출신의 유진(사진)이 영화에 데뷔한다. 드라마 '러빙유' '진짜 진짜 좋아해' 등에 출연하며 실력을 쌓아온 유진의 데뷔작은 '못말리는 결혼'.(가제)

엄한 가정에서 자란 강북 여자와 졸부 집안의 강남 남자가 부모의 방해를 뚫고 결혼에 골인하는 과정을 그린 로맨틱 코미디물로 '누가 그녀와 잤을까'에 출연한 하석진이 남자 주인공을 맡았다.

가부장적인 유진의 아버지 역으로는 임채무가, 복부인인 남자의 어머니역으로는 김수미가 캐스팅됐으며 '선생 김봉두'의 조감독 출신인 김성욱 감독이 메가폰을 잡는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